

## 관광객의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차이 검증을 통한 제주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Travel Risk and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on Jeju Tourism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이민재\*\* · 황윤섭\*\*\* · 서원석\*\*\*\*

Lee, Min-Jae · Hwang, Yun-Seop · Seo, Won-Seok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gnize the implic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tourism sector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travel risk and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and verified the differences in travel risk and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The result of survey show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Korean has higher score in climate change awareness and attitude, and Chinese in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 and behavior intention than the other group. Another important result is that the group with higher perception than average on climate change (awareness, attitude, risk perception, behavior intention) perceives greater travel risk than the other group does. Finally, the group with higher score than average in the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 and behavior intention seems to be more satisfied

\* 이 연구는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6043772)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주저자, e-mail: sophie0905@gmail.com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mail: rusiahys@khu.ac.kr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 e-mail: wss114@khu.ac.kr

with, and intend to repeat and recommend travelling to Jeju. Mor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Keywords** : travel risk,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climate change

**국문요지**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쓰나미, 폭설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 위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위험,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 간 관계를 탐색하여 관광위험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관광위험과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구 통계적 변수 중 국적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서, 중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위험 지각, 저감 의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관광 위험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 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서도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열쇠말** :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기후변화 인식

## I. 서론

2014년 3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실무그룹 II (WG2)은 기후변화의 영향, 리스크, 회복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중 리스크는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여 태풍피해, 홍수,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물 관리 실패 등이 포함되는데,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핵심을 리스크 관리와 감소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 기상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역량제고 및 신 성장 동력개발 지원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기후변화 관련 연구 중 0.5%가 관광과 관련된 것이다(Pang, Mckercher, & Prideaux, 2013). 관광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전문가 인터뷰나 실제 기후변화 변수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Jopp, Delacy, & Fluker, 2013; Ruhanen, & Shakeela, 2013; Klint, Wong, Jang, Delacy, Harrison & Dominey-Howes, 2012)과 특정 지역에서의 기후변화가 관광수수에 미치는 영향(신범철·황윤섭, 2013; Scott, McBoyle, Minogue & Mills, 2006; Eugenio-Martin, & Campos-Soria, 2010; Moore, 2010; Berrittella, Bigano, Roson & Tol, 2006)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광객의 지각과 관광위험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요인도 관광자원과 관광객 행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특정 지역의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지각도 중요한 변수 될 수 있다. 관광객들은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수요의 잠재적인 지리적·계절적 이동과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증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광객의 지각과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Gössling, Scott, Hall, Ceron & Dubois, 2012).

Scott(2008)도 기후변화 영향과 관광지 환경 요인에 대한 관광객들의 지각은 여행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지각된 위험 또한 이용객의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George, 2003),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적응 전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Carlton & Jacobson, 2013). 궁극적으로 이러한 접근들은 기후변화가 수요 요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보다 민감한 자연관광지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간 관계를 탐색하여 관광위험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및 관광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광객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관광위험과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란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온도, 습도, 강수량 등 기상상태에 대한 관측 값으로 측정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나 위험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후변화 인식은 ‘기후변화로 발생되고 있는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 등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으나(김진옥·김남조, 2013a, p.18),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인간의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의 지각된 위험 특성들이 어떻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연구(Bostrom, O'Connor, Böhm, Hanss, Bodi, Ekström, Halder, Jeschke, Mack, Qu, Rosentrater, Sandve & Sælensminde, 2012)는 기후변화 인식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판단,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가 각각 12개, 12개, 11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한 판단은 ‘기후변화가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위협적이다’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는 ‘가뭄, 폭풍, 빈곤, 식량 부족, 종이 멸종, 기후난민, 질병 발생 등이 심화된다’, ‘삶의 질이 저하된다’ 등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되는 위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Whitmarsh(2011)는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회의론을 측정하고, 이것이 개인의

특성, 지식과 가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이러한 회의론적 사고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하나가 기후변화 위험 지각에 대한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었고,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 지각에 대한 측정항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 위협성과 같은 감정적인 것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와 같은 도덕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Leiserowitz(2006)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정책에 대한 지지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기후변화 위험 지각을 측정함에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삶의 질 감소’, ‘물 부족’, ‘질병 증가’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 인식을 관광분야에 접목한 국내연구의 경우(김진옥·김남조, 2013a; 이민재·황윤섭·서원석, 2014; 이민재·황윤섭, 2014), 앞 서 소개된 해외 선행연구들을(Bostrom *et al.*, 2012; Whitmarsh, 2011) 바탕으로 맥락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현정·유광민·김남조(2014)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지각을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 정도(발생가능성)와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위협)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 및 측정항목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관광과 맥락이 다르고, 다수의 검증을 통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와 측정 항목이 부재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Leiserowitz(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변화 위험 지각 측정항목은 Bostrom *et al.*(2012)의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명명한 것들과는 유사한 반면, Whitmarsh(2011)의 기후변화 위험 지각 측정항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중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등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재분류해 보고자 한다.

## 2. 기후변화 인식의 차이

인식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Leiserowitz(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 소수자, 진보주의, 환경단체 회원, 신문 구독자’가 ‘백인, 남성, 보수주의자’에 비해 지구 온난화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iserowitz(2007)에서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인간 행동에 문제가 되는 특성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등에 대해 들어 온 정도에 따른 국제적 차이를 검증했는데, 이 연구에서 소개된 Globescan([www.globescan.com](http://www.globescan.com)) 자료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 위험

에 직면한 국가(방글라데시 등)와 높은 후기 물질주의 가치를 지닌 부유한 국가(북유럽 등)일수록 강력한 환경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국가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Zahran, Brody, Grover & Vedlitz, 2006)에서는 보다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위협하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밝혔다. Zahran *et al.*(2006)은 국가들마다 절대적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라 주장했는데 여기서 절대적 수준이란 각국의 거주자들이 구체적인 위험 특성들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causal beliefs), 또는 특정 정책들을 지지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위험을 지각한다고 밝혀진바 있다(Slovic,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인식이 국가 또는 지리적 위치 및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

관광과 기후 간의 관계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데, 기후변화, 극한 사건 등과 같은 일시적 기후 변수들은 관광의 여러 다른 하위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모든 관광 목적지는 어느 정도 기후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모든 목적지들은 자연적인 계절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폭우, 혹서, 폭풍 등을 야기하는 연간 기후 변동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이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만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cott & Lemieux, 2010). Martín(2005)은 날씨, 기후와 관광 간의 밀접한 관계를 조명하고, 관광 계획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장소의 기후와 이에 연계된 관광의 많은 측면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관광목적지의 매력도, 관광 활동의 계절성 등 뿐만 아니라 기후적 위험 측면에서의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객의 건강, 재방문 등에 영향을 미칠 만족 수준 등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Becken(2010) 또한 관광객 만족의 일부분은 날씨 의존적일 수 있으며, 관광객의 안전도 극한 사건, 더운 날씨 등과 같은 날씨 요인에 의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태풍, 좋지 않은 날씨 등이 관광지에 발생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증가할수록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위험 지각에 예민해지거나, 또는 목적지의 안정적인 기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

여 목적지 선택 및 만족,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관광은 그 특성 상 형태가 없는 경험재이기 때문에 범죄, 사회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위험과 위협들에 민감하다(Chew & Jahari, 2014). 관광에서 위험이란 실망(심리적 위험)에서부터 건강이나 생명 위협(물리적, 신체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관광 경험 중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실제건 지각된 것이건 상관없이 관광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Sönmez & Graefe, 1998). 관광위험은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결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Chew & Jahari, 2014; Sönmez, & Graefe, 1998), 특히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물리적 위험은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는데(Chew & Jahari, 2014),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수, 쓰나미, 허리케인, 혹서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은 관광객을 감소시킨다(Park & Reisinger, 2010).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관광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관광객의 만족을 기대-성과 일치/불일치에 근거해 규정하고 있는데(류성욱·한상희·이상호, 2014), 목적지의 기후와 관련된 요인은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속성 중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며(Tribe & Saith, 1998), 전반적 만족은 숙박, 날씨, 자연 환경 등과 같은 속성에 대한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Chi & Qu, 2008). 즉, 기후와 날씨를 관광객이 그들의 관광 활동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Martín, 2005). 특히 해변 관광의 경우, 기후, 해변, 풍광 등은 관광객의 만족/불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 속성에 포함된다(Alegre & Garau, 2010). 이와 같이 관광 목적지의 기후는 목적지 선택 등 관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 수준은 날씨에 매우 의존적으로 목적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mith, 1990; Williams, Dossa & Hunt, 1997).

행동 의도는 소비자의 능동적 충성도를 뜻하는데, 관광분야에서 충성도는 주로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나 타인추천 의도로 측정된다(Chen & Chen, 2010). 류인평(2011)의 연구에서는 구매의도 측정항목으로 충성도 항목과 더불어 관광지 만족도 포함시켰는데, 구매의도(관광지에 만족, 타인 추천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지각 요인으로 신체적, 기능적, 금전적 위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 지진, 해일/홍수폭설 등을 포함한 신체적 위험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좋지 않은 날씨를 포함한 심리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지 않은 날씨는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좋은 날씨보다 관광객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Becken, 2010). 또한, 기후변화 인식이 잠재관광객의 관광행동에 중단 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증된 바 있는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관

한 인식이 증가 할수록 관광객의 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김진옥, 김남조b, 2013).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위의 기후와 관광과의 관계에서 언급했듯이 기후변화는 관광객의 경험과 안전에 있어 많은 연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관광위험과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점에서 관광객이 지각하는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관광위험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설문 구성

기후변화인식은 김진옥·김남조(2013a), Bostrom *et al.*(2012), Leiserowitz(2006), Whitmarsh(2009)을 바탕으로 20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들마다 명명하는 것과 측정항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분하고자 중복되어 사용된 항목들은 가능한 모두 포함하였다. 관광위험은 Chew, & Jahari(2014)와 Gallarza, & Saura(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와 관련된 3개의 항목을 선별하였으며,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는 Chen, & Chen(2010), Gallarza, & Saura(2006), Chiu, Lee & Chen(2014), Calver & Page(2013)을 바탕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14년 2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중국인에게 각 220부 정도를 배포하였다. 성산일출봉 방문객은 성산일출봉 매표소 부근에서, 한라산 방문객은 중문관광단지 내 면세점 근처에서 한라산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해 자기 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설문문의 구성

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기후변화 인식 (20개)	최근 기후변화체감, 일상에서 기후변화체감, 기후변화 인지, 사회에 부정적 영향,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인간과 동식물에 큰 위협, 기후변화 두려움, 위협적, 비극적 결과 초래, 조만간 비극적 결과, 자연재해 유발, 기후변화 저감에 도덕적 책임감, 기후변화 저감 위해 노력, 기후변화 저감에 국가적 동참지지, 건강에 심각한 영향, 삶의 질 저하, 물 부족 발생, 심각한 질병 증가, 나의 삶의 질 저하, 내 거주지 물 부족, 내가 심각한 질병 걸릴 확률 증가	김진욱·김남조(2013a), Bostrom <i>et al.</i> (2012), Leiserowitz(2006), Whitmarsh(2009)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 (5개)	즐거움 시간, 전반적 만족, 기대대비 만족, 타인추천 의향, 재방문 의도	신진욱·정철(2014), Chen, & Chen(2010), Gallarza, & Saura(2006), Chiu, <i>et al.</i> (2014), Calver, & Page(2013)
관광 위험 (3개)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홍수나 폭설, 좋지 않은 날씨	Chew, & Jahari(2014), Gallarza, & Saura(2006)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후는 특히 자연·야외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 세계자연문화유산(제주)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관광지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도와 제주관광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여행 고려요인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자연경관감상이 63.3%로 기타 요인(휴양/휴식 12.8% 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국인의 경우에도 자연경관감상이 47.9%, 휴양/휴식이 34.1%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를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제주 입도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더 많지만<sup>1)</sup>, 증가율은 내국인 5%, 외국인 42.6%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한 성산일출봉의 경우, 최근 3년 간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sup>2)</sup>, 2014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다<sup>3)</sup>(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편,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제주관광공사, 2014; 제주관광공사, 2015). 그러므로

1) 2014년 내국인 894만 명, 외국인 332만 명, 2013년 내국인 851만 명, 외국인 233만 명

2) 최근 3년 간(2012-2014년) 성산일출봉 방문객 수: 내국인 523만 명, 외국인 427만 명

3) 2014년 성산일출봉 방문객 수: 외국인 178만 명, 내국인 161만 명

4) 2013년 외국인 233만 명 중 중국인 189만 명(82%), 2014년 외국인 332만 명 중 중국인 291만 명(88%)

제주 관광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만큼이나 비중 있는 시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415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였는데,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징을,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가설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3. 표본의 특징

인구 통계적 특징 및 관광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한 결과 <표 2>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층은 10~20대, 30대, 40대가 고르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600만원 미만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행태는 가족, 친지 또는 친구와 방문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여가/위락/휴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방문 횟수는 1회가 51.1%로 가장 많았으나 4회 이상도 18.1%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인의 경우 처음인 경우가 많고, 내국인의 경우 4회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 체류 기간은 1-2일 보다는 3일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도	유효비율	구 분		빈도	유효비율
국적	대한민국	211	50.8	연령	10-20대	111	26.7
	중국	204	49.2		30대	129	31.1
성별	남자	153	36.8		40대	125	30.1
	여자	262	63.1		50대 이상	50	12.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5	10.6	여행 동반자	혼자	41	9.9
	200-400만원 미만	124	37.7		부부, 연인	44	10.6
	400-600만원 미만	70	21.3		가족, 친지	168	40.5
	600-800만원 미만	56	17.0		친구	115	27.7
	800만원 이상	44	13.4		직장동료	34	8.2
방문목적	여가/위락/휴가	360	86.7		기타	13	3.1
	가족/친지 방문	13	3.1	체류 기간	1-2일	66	16.0
	기타	42	10.2		3일	126	30.5
제주방문 횟수	1회	212	51.1		4일	114	27.6
	2회	87	21.0		5일	64	15.5
	3회	41	9.9		6일 이상	43	10.4
	4회 이상	75	18.1				

## IV. 분석결과

### 1.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기후변화 인식, 관광 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측정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hronbach 를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1개의 항목은(‘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걸쳐 낮은 적재량을 보여 제거하였는데, 그 결과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된 측정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측정항목 내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지각’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한편, 관광 위험을 측정하는 1개의 항목(‘좋지 않은 날씨’)의 경우 요인 적재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없고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목이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3>와 같이 ‘좋지 않은 날씨’를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7 이상이고, 모든 요인의 Chronbach 값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3>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기후변화 인지	최근 기후변화체감	.795	1.030	3.815	.818
	일상에서 기후변화체감	.868			
기후변화 태도	사회에 부정적 영향	.812	9.612	35.601	.939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852			
	인간과 동식물에 큰 위협	.825			
	기후변화 두려움	.786			
	위협적, 비극적 결과 초래	.827			
	조만간 비극적 결과	.790			
기후변화 저감 의도	자연재해 유발	.704	1.867	6.916	.906
	기후변화 저감에 도덕적 책임감	.748			
	기후변화 저감 위해 노력	.828			
	기후변화 저감에 국가적 동참 지지	.781			
기후변화 위험 지각	건강에 심각한 영향	.745	3.947	14.619	.940
	삶의 질 저하	.809			
	물 부족 발생	.836			
	심각한 질병 증가	.847			
	나의 삶의 질 저하	.874			
	내 거주지 물 부족	.836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	내가 심각한 질병 걸릴 확률 증가	.794	3.021	11.190	.922
	즐거운 시간	.883			
	전반적 만족	.912			
	기대대비 만족	.888			
	타인추천 의향	.863			
관광 위험	재방문 의도	.784	1.401	5.187	.811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901			
	홍수나 폭설	.919			
	좋지 않은 날씨	.657			

KMO:.893 Bartlett 구형성 검정: 9460.262 (p:000)

## 2. 가설 검증

1) 가설 1 :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지각)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변수(국적,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 기후변화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본 결과, 국적(내국인과 중국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서는 내국인이 중국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의도와 위험 지각에서는 중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 평균			t	유의 확률	결과
			내국인	중국인	차이			
1	국적	인지	5.13	4.27	0.86	7.510	.000	부분 지지
		태도	5.05	4.52	0.53	4.028	.000	
		저감 의도	5.03	5.44	-0.41	-3.277	.001	
		위험 지각	5.14	5.49	-0.35	-2.939	.004	

2) 가설 2 :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지각)에 따라 관광위험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관광위험에는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지각 4개의 변수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집단이 관광위험에 대한 지각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관광위험 =3.97)은 평균 이하인 집단(관광위험=3.11)에 비해 관광위험 지각 정도에 있어 가장 큰 차이(0.86)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에 따라 관광위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0.85), 이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의도나 위험 지각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제주도 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지각된 관광위험의 경우 3점대 평균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관광위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집단		높은 집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N	평균	N	평균	F	p	t	p
인지	183	3.13	232	3.98	4.811	.029	-5.953	<b>.000</b>
태도	176	3.11	239	3.97	18.156	.000	-6.124	<b>.000</b>
저감 의도	176	3.26	239	3.86	17.567	.000	-4.148	<b>.000</b>
위험 지각	180	3.38	235	3.78	10.558	.001	-2.784	<b>.006</b>

3) 가설 3 :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저감 의도, 위험 지각)에 따라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의도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6.06)은 평균 이하인 집단(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5.63)에 비해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있어 0.43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있어 0.33 높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는  $p < 0.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에 따라서는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집단		높은 집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N	평균	N	평균	F	p	t	p
인지	183	5.84	232	5.90	2.097	.148	-.587	.557
태도	176	5.77	239	5.96	6.362	.012	-2.028	<b>.043</b>
저감 의도	176	5.63	239	6.06	12.154	.001	-4.646	<b>.000</b>
위험 지각	180	5.69	235	6.02	10.820	.001	-3.683	<b>.000</b>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가설 검증 요약

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 평균			유의 확률	결과
			내국인	중국인	차이		
1	국적	인지	5.13	4.27	0.86	.000	부분 지지
		태도	5.05	4.52	0.53	.000	
		저감 의도	5.03	5.44	-0.41	.001	
		위험 지각	5.14	5.49	-0.35	.004	
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 평균			유의 확률	결과
		평균 이하	평균 이상	차이			
2	관광위험	인지	3.13	3.98	0.85	<b>.000</b>	지지
		태도	3.11	3.97	0.86	<b>.000</b>	
		저감 의도	3.26	3.86	0.60	<b>.000</b>	
		위험 지각	3.38	3.78	0.40	<b>.006</b>	
3	관광만족	인지	5.84	5.90	0.06	.557	부분 지지
		태도	5.77	5.96	0.19	<b>.043</b>	
		저감 의도	5.63	6.06	0.43	<b>.000</b>	
		위험 지각	5.69	6.02	0.33	<b>.000</b>	

주) 가설1의 경우, 인구 통계적 특성 중 국적에 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으므로 부분지지로 표시함

## V. 논의 및 결론

관광은 여러 측면에서 기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특히 자연자원과 같이 주요 야외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민감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쓰나미, 폭설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 위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간 관계를 탐색하여 관광위험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광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관광위험과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인구통계적 변수 중 국적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서, 중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지각된 관광위험에서는 내국인(3.44)이 중국인(3.0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는 중국인(6.00)이 내국인(5.7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 인식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지각된 관광 위험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4개 변수(인지, 태도, 위험 지각, 저감 의도)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관광위험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 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서도 높은 평균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지각과 저감 의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떨어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기후변화 인지와 태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인이 내국인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의도와 위험 지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인지와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감 의도와 위험 지각에서 중국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중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추상적인 체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강한 저감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자연 관광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유도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부분의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위험 지각, 저감 의도)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관광위험과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라는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기후변화 인식에 더 민감한 집단이 관광위험과 관광만족 모두 더 크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광위험과 관광 행동 의도는 부(-)의 관계라는 선행 연구(Sönmez, & Graefe, 1998; 류인평, 2011; 노정희, 2007)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광위험 측정항목이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등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관광위험에 민감한 집단이 제주 관광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술통계 상으로도 제주 방문객의 경우 기후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관광위험 지각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관광위험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좋지 않은 날씨’ 4.01,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등)’

3.35, '홍수나 폭설' 3.29로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 수준 이하를 보였다. 즉, 제주는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기후에 민감한 자연관광지들, 특히 동남아의 섬 관광지와의 경쟁에 있어 제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즉,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고취될 경우 제주 지역의 안정된 기후를 관광 이미지화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광객의 기후변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측정항목 선별 및 검증 결과 비교 등과 같은 이론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향후 관광 분야의 기후변화, 특히 관광객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광객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들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을 거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인식의 영향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관광객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등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특히 개별 요인들 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기후변화 활용 전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진옥·김남조(2013a). 기후변화 인식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6), 11-32.
- 김진옥·김남조(2013b). 대중매체를 통한 기후변화인식과 잠재관광객의 행동의도에 관한 구조 관계 분석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관광·레저연구』, 25(8), 21-40.
- 김현정·유광민·김남조(2014).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6(4), 43-66.
- 노정희(2007). 미국관광객이 한국방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 22(3), 163-182.
- 류성옥·한상희·이상호(2013).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 부산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6(4), 3-22.
- 류인평(2011). 관광 위험 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1), 49-168.
- 신범철·황윤섭(2013). 기후변화가 일본인의 한국 관광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38(2), 179-204.
- 신진옥·정철(2014). 제주 올레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은 국내관광객과 어떻게 다른가? -추구 편의, 만족도, 충성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6(4), 113-134.
- 이민재·황윤섭(2014). 자국의 기후변화 인식이 관광객의 경험의 질, 지각된 가치, 만족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탐색. 『사회과학연구』, 40(2), 231-250.
- 이민재·황윤섭·서원석(2014). 기후변화인식과 관광객의 만족 및 행동 의도 간 관계 탐색-제주 자연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8(7), 11-35.
- 제주관광공사(2014). 제주관광시장동향분석보고서 2014. vol. 01.
- 제주관광공사(2015). 제주관광시장동향분석보고서 2015. vol. 01.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5). 2014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 Globescan, <http://www.globescan.com/>
- Alegre, J., & Garau, J. (2010). Touris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1), 52-73.
- Becken, S. (2010). The Importance of Climate and Weather for Tourism. *Land Environment & People Miscellaneous Publications*, LEaP, Lincoln University.
- Berritella, M., Bigano, A., Roson, R., & Tol, R. S. J. (2006). A General Equilibrium

- Analysis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5), 913 - 924.
- Bostrom, A., O'Connor, R.E., Böhm, G., Hanss, D., Bodi, O., Ekström, F., Halder, P., Jeschke, S., Mack, B., Qu, M., Rosentrater, L., Sandve, A. & Sælensminde, I.(2012). Causal Thinking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olicies: International Survey Finding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2, 210-222.
- Calver, S. J., & Page, S. J. (2013). Enlightened Hedonism: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service Value, Visitor Knowledge and Interest, to Visitor Enjoyment at Heritage Attractions. *Tourism Management*, 39, 23-36.
- Carlton, S. J., & Jacobson, S. K. (2013). Climate Change and Coastal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s in Florida.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130, 32-39.
- Chen, C. F., & Chen, F. S. (2010). Experience Quality,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for Heritage Tourists. *Tourism Management*, 31(1), 29-35.
- Chew, E. Y. T., & Jahari, S. A. (2014). Destination Imag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Risks and Revisit Intention: A Case of Post-disaster Japan. *Tourism Management*, 40, 382-393.
- Chi, C. G.-Q., & Qu, H. (2008).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Destination Image, Tourist Satisfaction and Destination Loyalty: An Integrated Approach. *Tourism Management*, 29, 624 - 636.
- Chiu, Y. T. H., Lee, W. I., & Chen, T. H. (2014).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Ecotourism: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40, 321-329.
- Eugenio-Martin, J. L., & Campos-Soria, J. A. (2010). Climate in the Region of Origin and Destination Choice in Outbound Tourism Demand. *Tourism Management*, 31, 744-753.
- Gallarza, M. G., & Saura, I. G. (2006). Value Dimensions,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Loyalty: an Investig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ravel Behaviour. *Tourism Management*, 27, 437-452.
- George, R. (2003). Tourist's Perceptions of Safety and Security While Visiting Cape Town. *Tourism Management*, 24, 575-585.
- Gössling, S., Scott, D., Hall, C. M., Ceron, J. P., & Dubois, G. (2012). Consumer Behaviour and Demand Response of Tourists to Climate Chan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36-58.

- Jopp, R., Delacy, T., Mair, J., & Fluker, M. (2013). Using a Regional Tourism Adaption Framework to Determine Climate Change Adaption Options for Victoria's Surf Coast.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1-2), 144-164.
- Klint, L. M., Wong, E., Jang, M., Delacy, T., Harrison, D., & Dominey-Howes, D. (2012).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Pacific Island Tourism Sector: Analyzing the Policy Environment in Vanuatu. *Current Issues in Tourism*, 15(3), 247-274.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 45-72.
- Leiserowitz, A. (2007).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Global Climate Chang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 Martín, M. B. G. (2005). Weather, Climate and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3), 571 - 591.
- Moore, W. R. (2010).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aribbean Tourism Demand. *Current Issues in Tourism*, 13(5), 495-505.
- Pang, S. F. H., McKercher, B., & Prideaux, B. (2013). Climate Change and Tourism: An Overview.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1-2), 4-20.
- Park, K., & Reisinger, Y. (2010).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Influ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Travel Risk on International Travel, *Tourism Geographies*, 12(1), 1-24.
- Ruhanen, L., & Shakeela, A. (2013).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ustralian Tourism Industry Perspectives on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1-2), 35-51.
- Scott, D.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Caribbean Regional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Programme. CTO Lot 3: Sustainable Tourism Policy Development, CTO/CRSTDP Regional Workshop, The Bahamas.
- Scott, D., McBoyle, G., Minogue, A., & Mills, B. (2006). Climate Change and the Sustainability of Ski-based Tourism in Eastern North America: A reassess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4(4), 376 - 398.
- Scott, D., & Lemieux, C. (2010).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for Tourism.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 146 - 183.
-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 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 689-701.

- Smith, K. (1990). Tourism and Climate Change. *Land Use Policy*, 7(2), 176-180.
- Sönmez, S. F., & Graefe, A. R. (1998). Determining Future Travel Behavior from Past Travel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Risk and Safe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71-177.
- Tribe, J., & Snaith, T. (1998). From SERVQUAL to HOLSAT: Holiday Satisfaction in Varadero, Cuba. *Tourism Management*, 19, 25 - 34.
- Whitmarsh, L. (2009). Behaviour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symmetry of Intentions and Impac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 13 - 23.
- Whitmarsh, L. (2011). Scepticism and Uncertainty about Climate Change: Dimensions, Determinants, and Change over Tim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 690-700.
- Williams, P. W., Dossa, K. B., & Hunt, J. D. (1997). The Influence of Weather Context on Winter Resort Evaluations by Visi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29-36.
- Zahran, S., Brody, S. D., Grover, H. & Vedlitz, A. (2006).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Policy Support. *Society & Natural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19(9), 771-789.

2015년 3월 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5년 5월 6일 1차 심사완료

2015년 11월 6일 최종심사완료일 및 게재확정일 통보

2015년 11월 9일 최종 논문 도착

3인 익명 심사 룩